진주시립무용단

제8회 정기공연

안무 / 정혜윤

부산시립무용단 초청공연

안무 / 김진홍(수석안무자)

일시 : 1994. 6. 24(금), 오후 7 : 30

장소 : 경 상 남 도 문 화 예 술 회 관

부산시립무용단 초청공연

진주시립무용단 제8회 정기공연에 부산시립무용단을 초청하여 특별공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지난 73년에 창단된 전통있는 무용단으로 그동안 250여회에 이르는 국내외 정기순회 공연을 통해서 수준높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정상급 수준의 무용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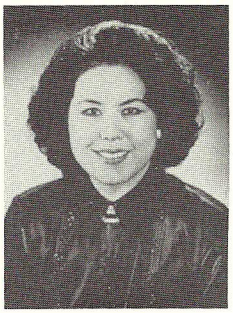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의 이번 진주공연은 향토무용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방문화교류 차원에서도 뜻있는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진주공연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부산시립무용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람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994. 6. .

진주시장 **백 승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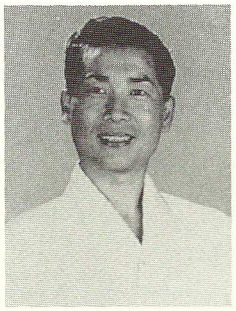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수석안무자
김 진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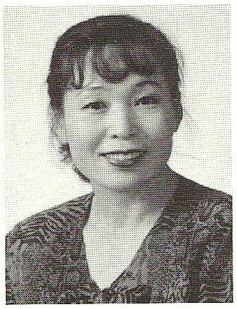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안무지도자
서 숙 자

진주시립무용단안무지도자
이 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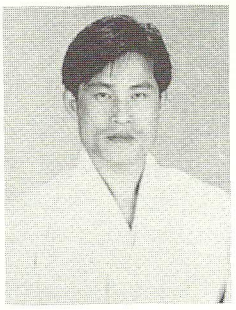
수 석 단 원
유 정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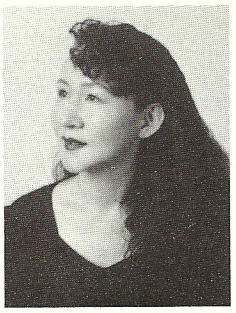
수 석 단 원
장 래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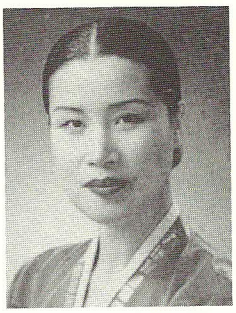
수 석 단 원
황 진 순



수 석 단 원
홍 기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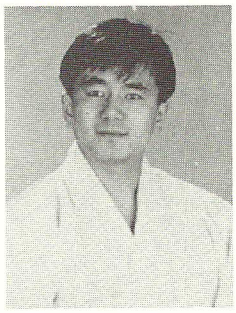


수 석 단 원
배 성 련



수 석 단 원
이 송 희

부 수 석 단 원
김 현 자



부 수 석 단 원
최 찬 열

PROGRAM

태평성대 TAE PYOUNG SEONG DAE

곱게 단장한 무원들이 궁중무 복식에 화환을 쓰고 긴 색한삼을 공중에 뿌리며 흥겹게 뿌리며 추는 춤으로 궁중무의 화려한 의상을 빌어 추는 춤이다.

교방 살풀이 GYOBANG SALPURI

교방살풀이는 이조시대 교방에서 내려온 춤이다.
교방은 관내에 설치된 기녀들의 악가무 교섭기관으로 나중에는 지방관청에 예속된 기녀들의 양성기관을 일컫기도 했다. 특히 교방 살풀이는 즉흥적의 연주와 즉흥적의 춤사위로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멋과 여성스러움을 더해준다. 음악장단은 살풀이, 자진모리장단에 짧은 흰수건을 어르면서 좌우로 번갈아 추는 정중동의 자유스럽고 신비스러움으로 예술적 미를 주는 춤이라 할수있고 진주 기녀들의 대표적인 춤이라 할수있다.

궁중무용 / 처용무 GOONG JOONG MU YONG / CHEO YONG MU

처용무는 신라시대의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가면춤이다. 춤의 내용이 악귀를 쫓고 복을 비는 내용으로서 오늘날에는 5인이 각각 5방색 青(동) 紅(남) 黃(중앙) 黑(북) 白(서)의 옷을 입고 4방 5방 또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다양한 춤사위를 추는 춤으로 호방하고 장중하며 화려한 춤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춤이다.

교방 굿거리 춤 GYOBANG GOODGEORI CHOOM

진주 교방 굿거리춤은(3분박4박자)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1900년대 이후 승무와 더불어 여기들에 의해 기방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어 졌으며 1930년대 한성준 옹이 고전무용으로서 지도하셨고 이 춤은 당대 명기들로 판소리와 진행연출 하였으며 춤사위의 이름도 음악의 창법이나 가락의 호칭과 혼합(예로서 대삼, 소삼, 잉어걸이, 완자걸이등)하여 쓰게 되었다. 이 교방 굿거리춤은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갖춘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한 춤으로 정립되었다.
춤의 성격은 차분하면서 끈끈하여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태로서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진주 교방굿거리 춤은 조선조 하락으로 관기제도가 금지되므로써 궁중여기들이 기녀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 무, 악으로 그들의 생업을 삼게 되었다. 한편 무축의 금지령에 의해 무당이 사찰과 관기로 분화되면서 무무기 기방으로 이입된 것이 발단이 되어졌다. 이 시기에 언제 어떤 경로로 진주교방에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방에서는 교방 굿거리춤으로까지 승화된 것이다.

민속무용 승무 MINSOGMUYONG SUNGMU

승무는 장삼에 고깔을 쓰고 추는 민속춤으로서 불교 의식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느린 염불장단에 맞추어 긴 장삼을 위로 휘 뿌리어 공간에 만들어지는 선의 형상과 하얀 고깔밑으로 보일듯 말듯한 담담한 정취 사뿐히 걷는 흰 버선발의 움직임 등이 다른 춤과 다른 이 춤의 고매한 아름다움이다. 춤의 중간 이후에는 법고놀이가 있으며 춤이 끝나면 양손으로 합장을 하는데 이런점이 특히 불교적 영향이라 느껴진다.

한 량 무 HANLYANGMU

우리의 전통춤이다. 그러하듯이 어느지방 특정인의 춤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라고 믿어질때 시대와 풍토의 변화에 의해 단절됨을 겪은곳은 잊혀지고 다행히도 맥을 잇는 곳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한량춤의 춤사위와 내면에 깃든 정신을 유추해서 볼 때 시대의 정신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회자 되어지는 바에 따르면 멋과 흥을 아는 양반 사대부의 여유로움과 자재로움이 담긴 멋의 깊은 경지를 알게 한다고 한다. 허나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의 이름이고 내면의 깊은 우울과 좌절의 시대적 상황을 한차원 높인 승화된 정신의 산물임을 엿보게 함도 주지해야 할것이다

신칼대신무 SINCAL DAESINMU

신칼대신무는 무속에서 유래되었으며 인간생활에 있어서 액을 피하고 평안을 기원하며 신을 맞이 할때와 보낼때에 추는 춤이다.
무구로는 대나무의 한지를 묶은 신대를 들고 춘다. 느린 장단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볶는 장단으로 연결되며 인간적 축원의 감정이 신에게 전달되는 듯 절제속에 풀고 조이는 춤사위에서 무속적 신비로움을 맛볼수 있는 춤이다.